

2022

제음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오영화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4

드리미 첫걸음

빛어지면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드리미에 와서 빛음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 빛음 기간은 태어나 처음해보는 생소한 프로젝트였다. 빛음. 말 그대로 빛어지는 과정에 내 자신의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나를 돌아볼 시간들도 많아서 느낀점이 많았던 시간들이었다. 아직 완벽하게 빛어지지 못했지만, 나의 내면적인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거친 돌이 부딪히고 부딪혀 예쁜 조약돌이 되듯이 하나님 안에서 잘 빛어져 드리미인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싶다. 좋은 그릇보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자 한다. 나를 비롯해 4기생 모두가 쓰임받는 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1차 빛음

1. 사명선언문
2. 신앙 에세이
3. 타임 엔지니어링 감상문
4. 언어빛음 소감문
5. 정의 에세이
6. 절제하는 삶의 원칙
7. 공동 성결 서약서

2차 빛음

1. 성결 에세이
2. 정직 기도문
3. 인터뷰 조사
4. 문제해결 프로젝트
5. 3P 창의활동 계획서
6. 평화 에세이
7. 빛음 마무리 소감문
8. 미리쓰는 나쁜 배웠다



ABOUT ME 오영화

2005년 6월 16일 여수에서 삼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교성과 말주변이 좋습니다. 취미는 농구와 기타연주입니다. 유쾌하고 능글맞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제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함을 가지고자, 또 제 역량들을 더 개발해보고자 드리미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명선언문



심리 상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가치들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버팀목을 알려주고, 다시 일어날 힘을 나누어 주는 사람.



가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이 보기에 본이 되는 아빠가 되어주기.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뿐 아니라 주위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을 꾸리기



본질적 사명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기. 삶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살아가기.



기타리스트

음악인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나누어준다. 나의 연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만든다. 나 역시 삶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지성인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배워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지성인이 된다.

ACTION PLAN

따뜻하고 타인과 힘, 하나님을 나누는 삶

- 심리학에 관한 책을 5권 정도 읽는다.
-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봄으로써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배운다.
-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굳힌다.

따뜻하고 섬겨주는 아빠, 남편

- 부모교육을 이수한다.
- 신앙이 있는 아내를 만난다.
-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 지금 우리 가족들과 가정예배를 짧게라도 매일 드린다.
-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
- 매일 성경을 10분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며 살기.
-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기.
- 2주일당 1권씩 책을 읽는다.
-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를 돌아보기.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는 음악인

- 매일 1시간 이상 기타연습을 한다.
- 1달에 2곡씩 곡을 선정해 연습한다.
- 찬양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 다양한 음악을 접해보고,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를 기본부터 심화까지 배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지성인

-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매일을 계획하며 살기.
- 한 달에 내가 여러 분야의 책을 2-3권 가량 계획해서 읽는다.
- 자주 웃고 다닌다.
- 경청하는 자세를 지닌다.
- 말씀묵상을 하며 하루를 돌아보고 영성일기를 쓰며 성찰한다.
- 따뜻한 지성인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삶을 알아본다.
-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려 노력하기.

신앙 에세이

나는 드리미 학교에 와서 내 신앙은 이제야 성장을 시작한 것 같다.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은 갓난 아이와도 같아서, 그저 하나의 보여주기 식 같아서 너무 보잘것없는 믿음이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들어와서, 또 너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서 하나님과는 분리되는 삶을 살아왔었다. 일상생활에 치여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나는 모태신앙이라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고 있어요.”라고 말하며 살아왔다. 처음 내가 드리미 학교에 발을 들인 날,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일찍 학교에 와서 11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일전에 엄마와 가정예배를 드리며 배운 찬송가가 나왔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모르는 찬송을 하는 게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배워둔다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다.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시려 계획하셨구나를 느꼈다. 별거 아닌 찬송가 한 곡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찬송가 한 곡으로 많은 감동들을 얻었다. 그 감동 덕분에 나는 이 학교에 편안히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다.

김선교 선교사님의 사경회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처음으로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선교 선교사님께서 믿음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저 알기만 하면 저절로 믿어진다. 알게 되면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들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셨다. 먼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엄마의 밑에서 많은 말씀들을 전해 듣고, 엄마가 경험한 것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 이심을 느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는 관계가 없듯 살아왔다. 계신 줄은 알았지만 어떤 하나님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왔다. 계신 줄을 알면서도 정작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던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 신앙에 대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선은 성경을 읽자는 생각부터 들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자는 생각이 들기서부터 주일예배, 사내예배, 다함예배에서 말씀묵상, 성경읽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감동이 들었다. 그날부터 나는 잠언 읽기를 하고 있다. 아직 어디에서부터 읽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지만 잠언에서도 그날그날 나에게 감사와 감동,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다. 또 사경회를 듣고 나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신앙 수업 시간들도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하루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에 대해서 배웠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 삶의 초점을 나로 잡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으로 잡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끔 만들었다.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서도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제는 관계가 있나니 정말 골 아프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선생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그분의 자녀로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으로 한 일주일 머리를 한가득 채우고 살았던 것 같다. “그냥 하나님 나 한번 만나주세요.”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찾는 이가 찾는다면서요. 나 하나님 정말 찾는다니까요?”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내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계시는 줄은 내가 아니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내가 아니까 좀 나를 고생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 뒤로 정말 나에게 고생이 찾아왔다. 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생활로 밴드 선생님께 폐를 끼친적이 있었다. 선생님들께도, 재학생들한테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고생과 부끄러움은 내면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지, 내가 드리미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잊고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말씀에서 훈계가 아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하시든 말씀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 중에 있다.

다음으로 복음 특강을 들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복음 특강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났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왜 사랑하시는데 대한 질문이 생겼다. 복음 특강 첫날 기도회에 각 기수, 선생님들께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정말 사랑하길 하는 거냐고 기도를 드리다가 다른 재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기도를 받게 되었다. 그 기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다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쩌서 날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생각했었는데 결국에 그게 이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받게 만드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나를 더욱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나 더러운 사람같이 느껴졌다. 선생님들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는 선생님들께 손조차 올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죄 많은 나도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나와는 달라 보였다. 떨치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드렸다. 하나님 없이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계속 더럽게 살 수밖에 없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복음 특강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에 확신을 얻게 만들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또 나를 섬겨주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나도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드리미에서 많은 일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있었다. 계속해서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다. 예배를 하면서 찬양팀을 볼 때마다 정말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같은 방 룸메이트 우진이 형에게 찬양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 그때 당시 우진이 형은 찬양팀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 우진이 형에게 왜 활동을 안 하는지를 물어봤었는데 그때 형이 자신이 찬양팀에서 찬양을 부르는 게 자신이 좋아서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찬양을 하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좋은 감정들이 많고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이 일 이후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 훈련이 부족해 모든 일에서 그렇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큰 중요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빛음을 통해서 아직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틀을 잡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없이 작은 것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도 깨달았다. 아직까지는 항상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나의 욕구를 따라, 기분 따라 살 때가 많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리고 싶다. 가장 나답고 사명있게 살도록. 이 드리미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싶다. 드리미에서 있을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나의 성장,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다.

타임엔지니어링 감상문

타임엔지니어링 수업은 정말이지 생소하게 다가왔던 수업중 하나였다. 어디가서 박한길 회장의 지속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은 드리미 학교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좀 게으르고 느긋한 성격이다. 평소에 시간관리를 잘 못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고, 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에게 타임엔지니어링 수업은 정말 필요했던 수업이었다. 회장님께서 어려운 개념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주셔서 더욱 이해가 잘 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관리 외에도 많은 지혜들과 지식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남는것만 있었던 시간이었다.

수업에서는 크게 시공간의 차원 개념과 그에 연관한 인간관계의 차원적 개념, 시간의 5가지 특성을 배웠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두가지가 있다. 인간관계의 차원적 개념과 시간의 초월성이다. 인간관계의 차원적 개념을 배우면서 내 인간관계는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었다. 나의 인간관계는 나와 같은 레벨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2차원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나와 다른 레벨의 사람과도 관계를 맺는 3차원을, 더 나아가 시간적 개념을 더해 글로벌적 영향력과 미래를 개척하는 4차원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5차원을 추구해야한다고 회장님을 말씀하셨다. 드리미 공동체에서 살면서 내가 성실히만 살아간다면 분명히 3단계는 물론 5단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인간관계의 수준이 좀 낮았던 것이 조금은 충격이었지만 앞으로 나의 성장 기대치가 큰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내가 성장해서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시간의 초월성이 가장 나에게 와닿았는데 시간의 초월성은 우리 몸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상상력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으므로, 상상력으로 미래의 나의 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와 나의 차이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서 세부항목들을 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나와 격차를 미리 줄여나가는 것이다. 나에게 구체화된 목적이 없었다. 하지만 사명선언문을 쓰면서, 타임엔지니어링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관심있는 분야들을 찾아보고, 내 미래 직업들을 생각해보고 액션 플랜을 쓰면서 내가 해 나갈 일들을 깊게 생각해 보았다.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생각하는데 끝이 아팠지만 무언가 내 미래에 대해 흥미하지만 길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회장의 큰 강의를 빼고도 섬김과 열정과 같은 것들도 짧게 조언,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강의들도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었던 것 같다. 회장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기에는 아직 나의 역량에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자주 이러한 개념들을 머리속으로 정립해보면서 익히고, 삶에 적용해 보면서 하나씩 내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커한 강의들을 많이 들어볼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다. 박한길 회장의 많은 지원과 관심과 사랑들을 강의중에 느낄 수 있었다.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회장님의 지원에 부응해 배웠던 것들을 내 삶에 집착시켜서 정말 글로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높은 자리에서든 낮은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섬기고, 끌어모음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하며 살 것이다.

언어 빛음 소감문

평소 나의 언어 생활은 정말 좋지 못했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 앞에서는 비속어를 쓰지 않는 척 하였지만 친한 친구들과 있을때는 비속어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였다. 딱히 쓸 이유도 없는데 말이다. 드림 학교에 처음왔을때도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툭툭 던진 적이 있었다. 그럴때마다 여기서든 조심해야 하지 정도로만 생각하며 그냥 넘길 때가 많았다. 그러다 빛음 수업중에 언어 빛음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언어 빛음 시간에는 우선 우리 한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우리 한국어는 청자 중심의 언어임을 배웠다. 상대를 중심으로 말을 이어나가기에 우리나라는 세계언어중에 가장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의를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었다. 상대를 높여주고 대화 중에 상대를 초점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기에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언어임을 알게 되었다. 또 한국어는 서술어가 나중에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다. 끝까지 들어 봐야 하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다. 또 타 언어에 비해서 섬세한 표현들이 다양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런 한국어의 특징을 알게된 후 정말 한국어는 섬세하고 예의있고 상대를 섬기는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차적으로 이런 한국어를 내가 상대를 욕하고 깎아 내리는데 썼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 다음으로 성경적인 언어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죄 이전에 언어는 매우 사랑스럽고 창조적이었다. 아담이 모든 생물에 이름 붙여주고, 하와에게는 '이제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라고 한 것을 보면 말이다.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말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 난 요즘 잠언 읽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잠언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나온다. 잠언 18:21절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나와있다. 성경에서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 주었다. 함부로 입을 놀렸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언어 빛음 수업을 듣고서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모르던 것을 알게되니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나쁜 언어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다. 의지가 부족해 언어 습관을 잘 고치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한 번은 밴드 선생님께 폐를 끼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너무 생각없이 툭 던진 말이어서 내 자신은 인지도 하고있지 못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나의 잘못을 깊게 깨우치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말로 상처를 받았을 밴드 선생님과 재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 일을 기점으로 내 언어 생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쳐나가려는 의지를 키우게 되었다. 아직도 나의 언어 생활은 완벽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아 갈 것이다. 말의 힘은 강대하기에, 나의 입으로써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차 빛음 기간에서는 의지를 키웠다면 2차, 3차, 그리고 전반적인 나의 삶에서 아름다운 입술이 되도록 실천에 옮길 것이다. 나에게 꼭 필요했던 수업이었고, 내게 큰 영향을 주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다.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마냥 감사한 마음 뿐이다.

정의 에세이

제목: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인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의.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정의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이며,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약자를 돕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정의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하였는데, 그럼 과연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분명 사회 곳곳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범죄, 성적 폭란, 부정부패 등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막는 문제들은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분명히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해봤을 것이고,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그랬던 적이 적지 않게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정의라는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의 전환점이 되게 하려 이 글을 쓴다. 정의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자 다른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개인에서 사회, 사회를 넘어선 보편적 윤리적 원칙을 추구함으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는 어느 수준의 도덕 수준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개인만을 생각하는 1,2 단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까지 생각할 수 있는 3,4 단계를,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더욱이 5,6 단계의 도덕 수준을 갖추려 노력해야 한다. 높은 도덕 수준을 겸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게 됨으로써 사전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품소 실천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개인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행동에 전달력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립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우리는 품소 행동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확립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의 목적은 사회와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사회의 규칙 아래에서 개인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 함이다. 좋은 공동체일수록 공동체의 구성원이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결국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앞서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높은 도덕 수준을 쌓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웠다면 이제 우리는 높은 도덕 수준과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서 정의를 실천할 때이다. 사회, 공동체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자 규칙인 법. 이것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 나서서 시민 의식 또한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간 무언의 약속과 같은 것들도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지켜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렇게만 지내도 우리는 사회와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꽤나 바람직한 사람이구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이정도로 끝낼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징표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철저히 약자들을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성경에서부터 남을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고 섬기고 약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 현대에서도 기부와 자원봉사, 복지와 같은 시스템(정의를 포기함으로 정의를 실현한다.)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활성화시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 또 성경에서는 회년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해이다. 7년씩 7번, 49년을 일하고 50년이 되는 해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 기쁨을 누리며, 종들도 풀려나고 땅들도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회년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쁜 해(복음을 주는 해)인 것이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땅이 돌아옴으로 기쁨이 되는 해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회년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자 진리이신 분이시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 이것이 진정한 모두에게 복음으로써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처럼 사회 전체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로 한 명 한 명 작은 영향을 미친다면 작은 부분에서의 성경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품소 보여주신 것들에서 배움을 얻어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다면 점점 정의로운 사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 조건에서 살아왔고 그 속에서 많은 부담감과 억울함을 느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 속에서 피해자였을 때도, 가해자였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도 정의롭다고 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온 것 같다. 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남에게 부담감을 줘게 한 적도 있고, 반대로 억울했던 일들도 여러번 당해보았다.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왜 이 사회는 이렇게나 일그러진 것인가? 나는 그 이유가 모두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허점이 많은 이 사회의 법 때문에? 사회에 박힌 악한 풍습 때문에? 아니다. 각자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더욱이 남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수록 더욱더. 다른 나라에서도 치안, 사람간 신뢰(예로 카페에 물건두기와 같은)이 고평가 받는 한국에서 17년간 살아온 나는 이제 현대사회에서 한국인은 정의가 많다는 이야기를 요즘에서야 더욱이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나라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진리와 사랑이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때로는 남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와 사랑말이다. 시편 85:10 말씀을 보면,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입을 맞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랑과 진실로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갖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예수님(하나님) 빼고는. 결국 우리는 한 사람, 예수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름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구원까지 얻는다면 이것은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제 정리를 해보려 한다.

첫째, 우리는 높은 수준의 도덕 수준을 쌓음으로써 바른 가치관을 세운다.

둘째,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바람직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셋째, 더 나아가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징표,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직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라 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에 가까워 지려 노력한다면 온전한 정의를 이루긴 어렵겠지만 분명 보다 나은 사회가 만들어 지리라고 확신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하자. 약자를 보호하고 품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자. 당신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남을 더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끝으로 글을 마친다.



절제하는 삶의 원칙

그대의 마음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게 하라. 육욕적인 본성에 굴복하는 자들은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마음속의 무절제한 욕정보다 더 큰 장애와 괴로움이 있을까?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여 나날이 강해지고 더욱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 1) 미디어 시정을 지나치게 한다.
- 2) 쓸모없는 소비가 많다.
- 3)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 4) 친구관계에 필요이상의 시간을 쏟는다.
- 5) 시간을 계획적으로 조직해 쓰지 않는다.

드림에서 절제와 균형잡힌 삶과 목적을 위해 사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 1) 종이 없어서 스스로 내 시간들을 절제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다.
- 2) 제한된 미디어만 사용함으로써 나의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
- 3)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 4)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인간관계의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 5) 내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깊게 생각 해볼 시간들을 자주 가질 수 있었다.

절제하는 삶을 위한 5가지 원칙

1. 규칙적인 생활하기.
2. 소비를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진정 필요한지 생각하기.
3. 미디어 보다는 독서, 운동을 즐기기.
4. 친구관계에 너무 치중하지 않기.
5. 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 중, 단기 계획을 짜 계획들을 바탕으로 매일 스케줄을 구성해 실천하기.

공동 성결 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
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
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
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
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
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
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오영화

성결에세이

이번 가치기초소양 수업에서는 성결에 대해서 배웠다. 수업들을 통해서 성결이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왜 성결해야 하는지, 나의 어떤 부분이 성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성결의 사전적 정의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하고, 성경적 정의는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 맺을때에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 성결에 관해서 사전적, 성경적 정의를 종합해 내가 내린 성결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또 느낀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완벽한 성결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성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결을 지켜 나갈 수 있다. 성결 수업을 들으면서 초반에는 성결에 정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기회는 많았지만 정확히 왜 내 삶에서 성결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결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아야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성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시간을 가지고, 왜 우리가 사회와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해보았다. 일단 우리 사회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보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휴머니즘과 같은 사상으로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당연해져서 사회가 되어있었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나에게 있어서 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다는게, 나에게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는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써 조금 부끄러웠다. 이 수업으로 왜 내가 우리 사회와 구별되어야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오면서 나는 정작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우선시 할때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의지해야할 분이라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들과 더불어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두고 살아왔다. 항상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들, 기준들에서 뒷전일때가 많았다. 큰 문제에 있어서 나를 바로잡아주는 길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진 않았다. 그러면서 항상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다녔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며 다니기에는 나는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있던 사람인 것 같다. 부쩍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앙적 질문들이 많았던 요즘에 하나님과 관계맺기 첫 단계인 성결조차 지키지 않던 나를 발견하자 나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상태로선 지옥에 갈 것이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평소 행실에서도 결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구석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았다. 가벼운 행동과 말, 수시로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들, 그럼에도 그러한 성결하지 못한 행동들을 사랑하느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또 성결 수업 시간에는 이 사회에서 성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수업때 조사해야할 보기들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성결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분야인 청소년 임신과 낙태에 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정말이지 이 사회가 얼마나 성결과 거리가 먼지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실태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을 더욱이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성결을 지키지 못해서 두려움을 겪는, 사회에 내몰리는, 한 생명을 죽이게 되는 청소년들을 보니 정말 마음 한켠이 미어졌다. 또 다른 친구들이 조사한 성결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을 볼때에 이런 것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채 나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나도 세상에 물들 수 밖에 없음도 깨달았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보았을 때,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성결을 이루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는 내 신앙을 위해서, 둘째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서 나 자신이 성결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나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성경읽기를 실천할 것이다. 매일 성경을 1~3장 정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음으로써 성결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항상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세속적인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살 것이다. 또 내가 성결을 이루게 된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리며 살아갈 것이다. 성결함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국에 성결함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배워온 가치들과 앞으로 내가 배워갈 가치들은 결국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모두 이루었을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나는 성결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결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성결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직 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도문

하나님, 이번 가치기초소양 수업에서 정직을 배웠습니다. 나는 꽤나 내가 정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오려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정직의 중요함을 많이 배웠고, 나 또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직은 진실함과 남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중에 선생님께서 하신 정직이 뉘냐는 질문에 나는 선뜻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정직은 내가 생각한 정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수업에서 정직은 정당한 마음과 바른 관점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배우니 과거 내 자신이 기준되어있던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결국에 이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과 평가를 생각하며 그것들을 지키기위해 아득바득 힘쓰던 것을 정직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왜인지도 모르고 정직함을 갖추어야한다는 말에 무작정 그 의미조차 모르고 나의 정직을 지키며 살아온 내 과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또 수업 시작 전부터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드린 찬송 '우리의 기도'를 부르면서 나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찬송을 불렀을 때에는 예수님의 겸손함, 거룩함,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내 안의 교만함과 천박함, 거짓됨을 벗어버린다는 가사가 계속해서 날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어린양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구절에서 나는 예수님과 나를 참 많이 비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함과 거룩함, 정직함. 반대로 내게서는 정말 교만함과 천박함, 거짓됨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정직은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길을 걸으셨나요? 왜 그 길을 걸으셨나요? 나는 이제 정직의 개념을 배웠고 그간의 나의 행동으로 인한 나의 수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정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사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며 노아와 아브라함의, 야곱의, 다윗의 하나님은 정말 잘 알겠고 내 주변인들의 하나님도 너무나 홀로 영광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의식적으로만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라서 아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도, 나를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것도, 나를 절대로 무엇하나 부족하게 하신 것 없다는 것도 알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해요. 이런 내가 정직한 걸까요? 이런 내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도 못미치는 사람이라는걸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거라 자신 있어요. 차라리 날 고생시켜 주세요. 결국에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도록,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러면서 내가 정직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정직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르고 정당한 것을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더군요. 바르고 정당한 것도 어려운데 선까지 행해야하는걸 보면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내 자신이 혼자 이루지 못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용기를, 정직과 정직으로 인한 예수님의 모습을 타인에게 비춰줄수 있는 선행을,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겸손을. 무엇이든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행해주세요. 정말이지 무서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 보렵니다. 어차피 인생 그 무엇 내 뜻대로 되는 것 없고,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순종 잘하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ㅎ 이왕이면 누구 쓰실거 나 좀 써주세요. 이 기도문으로 정말이지 나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사를, 은혜를, 기적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터뷰 조사

조사 기관: 심리상담센터연구소인

조사 목적:

- 심리상담에 관심이 있지만 시작이 어려워 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상담에 필요한 기본 소양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 전문심리상담사가 되려면 어떠한 커리큘럼을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다.
- 심리상담이라는 분야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변화와 비전에 대한 답변을 얻는다.

인터뷰 내용

Q. 심리상담사의 기본 소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사람에 대한 애정, 관심이 있어야하고 진실함이 있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되어야해요. 사회제도가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인식이 있는 사람. 이것이 기본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전문 심리상담사가 되려면 어떤 커리큘럼을 밟아야 하나요?

A. 상담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증을 따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봉사와 같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부분의 심리상담사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이 이러해요.

Q. 저의 관점에서 볼때에 심리상담은 자살률 증가, 개인주의의 확대에 의한 개인의 외로움 증대등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부상되고 있습니다. 상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미래의 심리상담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담은 중요시되고 필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첨단과학화, 기계화 될수록 인간의 갈증과 목마름은 인간으로 밖에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람에게 결핍된 부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내면의 정서가 무시되면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당연하죠. 일탈이 아닌 바람직한 방법으로 결핍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상담이 하기에 상담은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인공지능이 성장함에 따라서 심리상담의 역할을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 심리상담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단순한 상담은 이미 AI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고도화된 상담은 사람이 해야해요. 상담은 원칙과 단순 반응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성과 융통성, 상호작용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담은 AI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체와 교류, 소통함으로써 충족이 되는데, AI기술이 상담을 하게 되려면 뇌과학이 병합되어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에서 이뤄지는데 모르는 사람과 신뢰를 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님만의 특별한 스킬 이 있을까요?

A.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심리상담에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으뜸소양은 진실함과 경청이에요. 제가 가진 능력은 내담자의 답변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분석력인 것 같아요. 반응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체계화해서 분석해 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낸 정보를 바탕으로 친절하게 내담자에게 방향과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소개해 주는 게 제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에 여러 상담 도구, 지식들을 꾸준히 공부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압니다.

Q. 상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공부하기에 생소하기도 하고, 접근이 어렵기도 해서 청소년기에 공부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 상담사를 청소년기부터 준비하려면 어떤 준비, 공부, 경험이 필요할까요?

A. 나이를 불문하고, 심리학을 먼저 입문하려면 자기 이해가 필요해요.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고, 삶의 패턴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트입니다. 중,고생 정도가 되었다면 심리학과 관련된 쉽게 풀이된 서적들을 한두권 정도 도전해 보세요! 그 이후로도 관심이 간다면 다양한 심리학자들도 조사해보고, 심리상담학을 전공하기 위한 정보들도 수집해보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일에 기여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Q. 심리 상담사로서의 고충은 무엇인가요?

A. 내담자에게 맞는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만족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는 그걸로 오케이.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크게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내담자가 상담이 꼭 필요한 상태인데 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시작은 했는데 내담자가 따라오기 힘들어 한다거나 제가 잘 맞추지 못할때. 첫번째 경우에는 주변인을 설득시켜서 상담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 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두번째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매체를 사용하고, 그 매체들과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구요.

Q.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을 추천하시나요?

A.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진로에 맞게 가는 것이 당연하죠. 사람에 관심이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분석해 안내를 해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요. 사람들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반짝임의 삶을 창조해 내는 직업이라 굉장히 의미있는 직업이에요. 그렇기에 아주 중요하고, 바람직한 직업이기도 하구요. 힘들때도 있고 실망할때도 있고 망치를 맞은 것처럼 고민할 때도 있지만 저는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총 정리

- 심리상담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 경청, 진실성,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
- 심리상담사가 되려면 먼저 관련 학위를 따야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실무경험으로 역량을 올려야함. 그 분야가 너무 넓어서 공부해야할 범위가 큼.
- 심리상담은 미래에 더욱이 조명을 받을 것임. 인간의 심리적 결함을 살아있는 생명체와의 역동적인 소통으로 극복해내는 과정이기에, Ai가 대체하기 힘들 것이다. Ai 상담 또한 간단한 상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상담은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에서의 치료이기에 더욱이 중요해지고 부상될 것임..
- 심리상담의 스킬로는 사람의 말을 쉽게 지나쳐 듣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이유와 패턴 등을 분석할 줄 알아야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들을 체계화 시켜서 바람직한 길과 대처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한다. 또 다양한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내담자와의 상담이 원활하고 참여도를 증진 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경청하는 자세와, 상담자 본인의 진솔함을 겸비해야함.
- 심리학에 입문하려면 먼저 자기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자신을 이해해야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트이기 때문. 자신의 심리상태와, 삶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야함. 일정 나이가 되면 관련 서적을 읽으며 지식을 쌓고, 관련 학위를 취득하면서 커리큘럼을 밟는다.

인터뷰 후 느낀점과 배운점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보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의 역량을 기르는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인터뷰 진행은 판만 깔아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커넥팅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서 미팅 시간을 잡는 것은 자주 접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한 질 높은 질문을 만드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었고, 나를 많이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요청을 3번 정도 거절을 당해서 좌절도 했지만, 끝까지 부딪혀보니 결국에 내 힘으로 이루어 낸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느낀 점이 있었다. 평소 나는 스스로 별로 없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는 편이라서 인터뷰 진행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다시 들어보니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역량 또한 부족했기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터뷰를 경험 삼아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나의 문제점들을 고쳐 보다 나은 인터뷰 준비, 진행,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이러한 수업이 그저 인문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내것이 되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용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 즐겁게 한 과제중 하나였다. 남는것도, 얻어가는 것도 많은 수업이었다. 나에게 이러한 도전적인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함을 느낀다.

문제해결 프로젝트

팀원: 이연수, 오영화, 박창원

주제: 우산 대여소 운영

문제 개요

- 갑작스런 우천시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학교 구조. (예 기숙사와 체육관 거리가 비를 맞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음) 우산이 없는 학생도 있고, 미처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의미 있는 청중

- 선생님들, 학생들, 외부인. 학교를 찾아오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

- 우산 가격, 학교 지리, 우산 대여제 운영을 위한 대책, 우천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불편사항, 천안 병천면의 강수량, 실사용 인구, 각 학생의 우산 소지 여부, 우산 대여제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 일기예보

문제 해결 방법 정리

기숙사 출입구 1곳, 플스 1층에 한 곳, 배움관은 1층 과학실쪽에, 체육관은 입구에 우산 꽃이함을 설치. 각 꽃이함마다 2-4 개의 우산을 비치.

우산은 하루 대여. 우산 안쪽에 부착된 이름표에 '사용가능' 종이를 '사용중'으로 바꾸어 하루동안 사용한 다. 하루 사용후, '사용중' 종이를 '사용가능'으로 바꿔놓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우산의 출처를 밝힌 다.(스티커 부착) 운영비 납부방법은 사전에 설문지를 대상자들에게 돌려서 대안 1)과 대안 2) 중에서 선택한 다.

대안 1) 우산을 사용할때마다 200원 사용료 부과. 사용료는 망가진 우산이나 추가로 필요한 물품 구매에 이용. 기간을 정해서 몰아서 납부. 시행할 시에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됨으로써 우산의 품질상 자연적으로 망가지는 경우에 재정지원 없이도 우산을 추가 구매 가능, 망가지는 우산이 적을 경우에 재정상 여유가 생긴 다면 좋은 우산으로 교체될 수 있음. 하지만 망가지는 우산이 많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

대안 2) 우산이 망가진다면 스프레드시트 기록상 마지막에 사용한 사람이 2000원을 부과한다. 부과금은 대안 1)과 마찬가지로 추가 물품구매에 이용. 시행할 시에 망가지는 우산이 많은 경우에 대안 1)에 비해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것임. 그러나 스프레드시트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시에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 망가뜨렸 다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음. 외부인에 의해서 망가진 경우에 수급 불가.

필요에 의해 두 가지 방법 같이 병행될 수 있음.

Action plan

필요물품: 우산 꽃이함 4개, 우산 16-20개, 우산에 부착될 스티커, 우산에 부착될 이름표, 종이, 우산대여 안내문 4장, 공유용 스프레드시트

기숙사 입구, 플스 2층, 체육관 입구, 배움관 1층 과학실 쪽 입구에 우산 꽃이함을 배치하고, 각 우산꽃이함에는 3-4개에 우산을 비치한다.

운영: 학교 내 사람들 전부에게 우산대여제 장부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한다. 우산 꽃이함이 비치된 공간에 우산대여방법 안내문을 부착해 학생들이 유연하게 우산을 대여할 수 있게 한다. 우산을 사용할 때마다, 각 사람들은 장부에 대여하는 우산칸에 자신의 이름을 작성한 후 우산을 대여해 간다. 대여한 우산은 우산에 부착된 이름표 안에 있는 '사용가등' 종이를 뒤집어 '사용중'으로 바꿔 사용한다. 대여한 우산은 하루동안 사용하고, 대여가 끝난 우산에는 '사용중' 종이를 '사용가등'으로 바꿔놓는다. 우산 반납은 자신이 대여한 장소에 직접 가져다 놓고, 비가 지속되어서 돌려놓을 수 없는 상황에는 다음날에 가능한 빨리 반납한다. 납부방법은 한 학기에 한 번 장부에 기록된 대여횟수 * 200원 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한다. 운영팀은 납부기한이 다가오면 전체 학생에게 어셈블리 또는 전체 행아웃으로 공지한다.

우산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는 납부방법을 바꾸어서 파손한 사람이 2000원을 납부하는 정책으로 바꾼다. 납부 대상자는 장부 기준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으로 한다.

역할 분담

물품관리: 재무팀에서 사온 물품들을 정해진 장소에 배치. 망가진 물품을 확인하고, 재무팀에게 보고, 새로 물품을 배치. 우산대여 스프레드시트 제작, 관리, 확인.

재무관리: 물품 구매 및 요금 관리. 장부를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한다. 각 부서에게 보고받은 필요 물품을 예산에 맞추어 빠른 시일 내에 구매. 요금 수금이 잘 되지 않을시에 공지관리에게 보고.

공지관리: 학생들에게 우산 대여제에 관련된 공지 담당. 필요한 중요 공지들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 해줌. 납부 고지 담당. 공고 제작.

3P 창의활동 계획서

활동명 : 3ing(뜨링) 밴드

개요

본 활동은 밴드를 구성함으로 음악분야에 대해 깊이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음악에, 기타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게 만드는 수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한다. 기타를 배우더라도 한가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각 기타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다른 분야를 배워 나갈 수 있다. 기타 외에도 밴드에 들어가는 각 악기들을 좀 더 심화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음악을 접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음악의 본질적 의미를 잊고 살아간다. 음악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서 발전해 나간 것이다. 주님이 주신 창조성, 즉 음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고 어떠한 의미를 담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음악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악에 대한 메시지, 음악의 본질적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과 음악을 사랑하는 어른과 청소년들을 위해 버스킹을 진행할 것이다.

기타를 치는 팀원은 3가지 기타(어쿠스틱, 일렉, 베이스)를 연습하여 세가지 악기를 모두 기본기 이상 다룰 수 있게 한다. 세가지 악기를 모두 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드럼, 피아노와 같은 악기들도 원하거나 필요에 의해 연습을 할것이다. 팀원 모두가 합주하기에 적합한 실력이 되면 하나님의 음악적 뜻을 전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하여서 연습하여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 버스킹을 진행한다.

의미있는 청중

음악을 사랑하는 어른, 청소년. 음악의 본질적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

자료와 재료

어쿠스틱·일렉·베이스 기타, 각 기타 교본, 기타에 필요한 용품(피크, 카포, 조율기 등), 악보, 외에 필요한 악기들(피아노, 드럼 등)과 장비들(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내용 및 활동

모든 팀원은 악기 하나는 기본기 정도 다룰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1주-3주정도 어쿠스틱 기타를 바탕으로 기본 코드를 숙지하고, 다양한 연주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론, 실습) 기타 외에 다른 피아노, 드럼, 보컬 등의 역할의 팀원은 기본기를 다지고, 추가적으로 자신이 연습하고 싶은 곡들을 연습하며 기본기를 다진다. 기본기를 바탕으로 기본기 외에 스킬을 연습한다. (슬라이드, 플링 오프, 해머링, 팜뮤트, 초킹 등)
- 4주차에는 각 팀원이 조를 이루어 팀을 나누고 실력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후, 자신이 하고싶은 곡을 기준 아래에서 곡을 조사, 선정한다. 독서할 책 리스트 제작.
- 5주차에는 선정한 곡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각 팀에서 연습할 곡을 최종선별하기.
- 6-7주차에는 선정한 곡을 개인연습과 합주를 통해서 선정한 곡의 완성도를 높인다.
- 8주차에는 연습을 바탕으로 완성시킨 곡을 버스킹을 통해 사람들과 나눈다.
- 9주차에는 그간에 과정들에 대한 자신의 향상도와 부족했던 점, 느낀점으로 소감문을 작성한다.
- 위 과정을 한 학기간 반복한다. 한 학기간 곡을 6-7곡 정도, 버스킹을 2-3회 진행한다.

세부 활동

1주 : 기본코드 숙지.

- 기타연주를 하는 팀원들은 기본 코드를 다시 다져보는 시간을 가진다.

2주 : 스케일 연습, 파워코드 숙지.

- 스케일 연습을 죽어라고 한다. 또 파워코드는 어떤 식으로 파지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3주 : 1,2 주 연장 연습

- 기본코드, 스케일, 파워코드를 그간 연습했던 것들을 연습한다.

4주 : 개인 기량 확인 및 조편성, 책 선정

- 팀원 개개인의 기량을 확인한다. 각 개인 기량을 고려해서 팀을 편성한다. 5주차에 있을 곡 선정을 대비해서 팀원간에 곡 선정 리스트를 만든다. 팀마다 바람직한 음악관을 가지기 위한 책을 선정해서 리스트를 만든다.

5주 : 곡선정 및 책 선정

팀끼리 함께 연습할 곡 2~3곡을 선정하고, 연습기간동안 읽을 책 2권을 선정한다. 선정된 책은 틈틈히 읽는다.

6~8주 : 곡 연습

선정한 곡을 각팀마다 개인연습, 합주를 하며 곡의 완성도를 높인다.

9주 : 버스킹 및 평가, 독서 감상문 작성

버스킹을 준비, 공연 및 마무리를 하고, 총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점, 변화한 점에 대해서 쓴다. 선정한 책 2권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한다.

~ 위 과정을 학기동안 반복하며 곡은 6~7 곡, 책은 4권, 버스킹은 2회 이상 진행한다.

평화 에세이

제목: 내 내면의,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 평화란 무엇일까? 단순히 전쟁이 없고 난민과 기아가 없으면 평화일까? 평화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분류되는데, 소극적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전쟁의 부재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적극적 평화는 소극적 평화를 확대한 개념으로,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평화는 적극적 평화일까 소극적 평화일까? 당연히 둘다 모두 이루어야 한다. 비교적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에서는 소극적 평화가 더 우선시 될 것이고, 우리나라(아직 우리나라도 휴전상태이긴 하지만,)와 같은 선진국은 적극적 평화를 이루려 더 집중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평화를 이루기 전에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한다. 자신조차 평화로운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불안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평화가 있을수 있겠는가?

먼저 우리의 내면, 속마음을 들여다 보자. 우리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 미워함이 나오고 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까내리기 바쁘다. 나 역시도 매일매일 정죄하기 바쁘고, 이걸 읽고 있는 당신 또한 매일 비판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인간은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다른 경험들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차이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나는 드리미학교에서 생활하며 내 속의 정죄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던 시기가 있었다. 정죄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내 자신을 볼때마다 내가 너무 한심에 보였다. 이러한 것들로 지쳐갈때 나는 하나님께 내 속의 정죄함을 끌어내 달라고 기도드렸다. 그 이후로 남을 정죄할때 나는 자꾸만 내 행동들이 겹쳐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남의 행동들을 나 역시도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정죄를 하더라도 바로 멈췄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니, 정죄는 멈추고, 내 자신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 같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한다. 아직도 내 속마음에서 정죄는 끊이지 않지만, 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죄하던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변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당신도 정죄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기 바란다.

드리미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난 내 안의 평화, 화평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나를 제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나’,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점들이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제 지금에 성장한 나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한다. 드리미학교에서 가장 나에게 변화된 모습은 도전하는 것이다. 항상 도전하는 것이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내가 드리미학교에 와서는 나를 돌아보려, 한계에 도전하려 노력하고 있다.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려면 결국에 자신에게 있는 한계를 직면해야한다. 나의 한계들을 직면하고 그것들을 인정해야한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임을 깨달아야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겸손을 지키며 더 나아가려고 도전해야한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그것을 더 개선해 나가려하고, 나의 달란트는 발전시키려 노력함으로써 나는 ‘나’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신 또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다면 나는 그 한계를 이제는 마주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같은 방법으로 내면의 평화를 이룰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이 글을 쓴다. 기억하라. 당신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자.

빛어지기 시작한 나를 보며

빛음 2단계를 마무리하면서, 빛음 2단계 시기를 보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점들을 많이 느낀 것 같다. 그만큼 빛음 2단계 동안 내 자신이 무엇인가 계속 도전했다는 뜻이다. 그 도전 속에서는 좋은 결과도 있었겠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좋지 못했던 결과도 많았다. 확실히 내가 느낀 점은 전에 살던 삶보다 비교적 질 좋은 시간,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학습시간으로 따지면 전에 다니던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짧지만, 드리미 학교에서는 훨씬 질 좋은 교육과, 환경 덕분에 짧은 시간동안에 배운 것들이 많다.(찬양팀, 영상팀, 운동, 독음 등)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해보고 싶은 일들은 모두 지원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듣고 있는 선택수업에 추가로 연극을 배우고 있고, 다른 부가적인 활동들로 찬양팀, 영상팀, 음향스튜디오모임, 카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최대한 몰아쳐서 내 한계까지 부딪혀 보자는 생각에 판을 키워지만 막상 모든 일들을 하려니 너무 힘들고,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깨닫게 되는 최근의 날들이었다. 많은 일들에 부딪혀서 한가지를 해결하지 못할때에 나에게서 나오는 자기비판과 자의식과잉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한 긍정적인 생각 덕분에 그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한걸음 더 성장했던 구석들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끝프나 영상팀. 다양한 일들을 해보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분야에 재능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부딪혀 보고 내 한계점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요즘이다.

드리미에서 인간관계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들과 소통하고 고민을 주고 받으며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에게서 많은 가치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가치으로 인해 나의 감정이 계속해서 억눌리고 있음도 깨달았다. 연극 연습을 하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는데, 어째서 머리로는 간단하게 감정 표현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지 어이가 없었다. 남에게 걸으려 드려나는 것이, 남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것을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내 자신에게 미안해졌다.

나는 열정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이든간에 그 일이 크든, 작든. 성경 구절중에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한자가 어떻게 큰일에 충성할 수 있겠냐는 구절이 있다. 요즘 자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다. 뭘든지 나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다.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솔직히 내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 걸 아실테니까. 내 마음 속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아빠다. 아빠로 하여금 정말이지 잘했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싶다. 아빠는 열정하나로는 둘째라면 서러우실 분이시다. 정말 본받고 싶고, 그런 아빠보다 더 열정 넘치게 살아서 내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아빠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라도 쓰시면 그 길로 주저없이 가는 사람이 되고싶다. 내가 정확히 꿈이 없는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곧 주시려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발뚱고 뭉쳐있는 생각은 없다. 더욱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과 아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드리미 학교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한다.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한다. 절실히 배움을 더더하면 안되고, 부지런 해야한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아직은 나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도 모르겠다. 졸업했을때 나는 내가 학교에 없으면 학교가 안돌아 갔으면 좋겠다. 그정도로 학교에서 많은 분야에 능력이 있는 능력자, 지성인이 되고 싶다. 학교에서 키운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앞서 행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

나는 배웠다.
나의 삶에 정의, 절제, 성결, 정직,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모든 가치들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 안에서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없이는 공동체를
품을 수 없음을.

나는 배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한다는 것을, 그것들이 하나님보
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열정없는 삶은 의미없는 삶을,
나의 모든 열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